

교계 여성복지 '뒷집'

종교계 운영 시설 29곳중 불교 1곳 "교구본사별 '여성의 집' 설치 필요"

불교계에서도 여성복지의 사각지대다. 경제여건 악화로 근래 들어 가출여성과 여성 실직자가 늘면서 개신교 천주교가 이들을 위한 시설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불교계는 여전히 뒷집을 지고 있다. (본지 346호 1면 기사 참조) 특히 해마다 1천여 명의 가출여성이 양산(경향신문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불자 여성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여성복지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 여성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모자보호원, 여성쉼터, 여성의 집 등 여성복지시설은 모두 59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시설은 29곳이며, 2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구 '자비의 집터' (원장 오정스님) 단 한 곳뿐이다.

현재 불교계 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략 400여 개. 그러나 이들 시설은 거의 대부분 노인복지나 지역복지(종합복지관)에 편중돼 있을 뿐 여성복지 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고, 개신교나 천주교와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처럼 불교여성복지가 낙후된 원인으로서는 종합복지관 수탁 중심의 불교계 복지사업 추진, 여성시설 같은 소단위 시설운영의 불교계 외면, 여

성복지에 대한 스님의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 권경임 원장은 "80년대 이후 불교계 복지사업이 종합복지관 수탁에 편중되다 보니 여성복지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 복지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대에 걸맞은 각 교구본사별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종단 차원의 여성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비의 집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감천'의 이병규 사무국장은 "불교계 여성복지 정책은 상담·보호 등 소극적 활동에서 법률적 지원, 취업교육, 시설 설립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역량 강화와 폭넓은 포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행굴에서 발견된 고려말부터 조선초기 청자, 백자, 기와, 옹기 조각들.

제주 존자암 추정 수행굴 발견

거주흔적 토기 등 출토

한라일보 탐사팀

제주 한라산에서 존자암의 옛터로 추정되는 '수행굴(修行窟)'이 발견돼 제주 불교의 원류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 한라산 학술 탐사팀이 11월 24일 한라산 영실 동남쪽 지역을 탐사하던 중 발견. 전문가들의 확인 작업을 거쳐 5일 발표한 이 수행굴은 길이 28m, 높이 1.5~5.5m, 폭 7~8m로 4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탐사팀은 '내부의 지형은 3단으로 형성돼 있었다. 상층부에는 가로 세로 각 1.5m 정도 되는 공간이 있었다. 아마 불상을 모셨던 자

리안 듯 내부의 돌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다."고 발견 당시의 모습을 설명했다.

특히 이 수행굴은 고문헌에 '존자암의 옛터가 수행동(修行洞)에 위치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존자암 옛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 중종 25년(1530)에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수행굴)이라 전해졌다"는 내용이 있다. 또 1609년과 1702년 한라산을 올랐던 김치판과 이형상 목사의 기록에는 "영실의 동남쪽 하리에 석굴이 하나 있는데, 수행굴이라고 일컫는다"고 적고 있다.

김중근 기자

홍경민의 '지혜의 말씀' 청소녀팬 몰린다

본사 붓다뉴스·핸드폰 접속 급증

청소녀들에게 불자가수 홍경민(사진)의 '지혜의 말씀'이 뜨고 있다.

본지가 무선 이동통신의 불교정보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무선이동통신과 붓다뉴스(buddhanews.com)에 마련한 '홍경민이 띄우는 지혜의 말씀' 코너에 청소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벤트를 시작한 12월 3일 아침부터 이 코너에는 홍경민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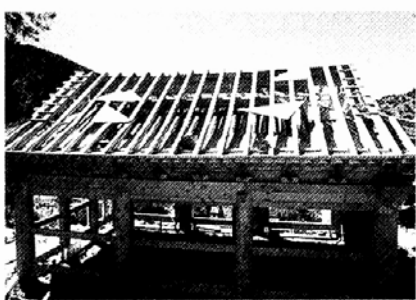
붓다뉴스의 홍경민 이벤트페이지에는 두 가지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홍경민이 15분 분량으로 녹음한 지혜의 말씀 듣기에 청소녀들이 매료된 것이고 또 하나는 흔적남기기 코너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를 '경민 오빠'가 제공해 주었다는 고백도 볼 수 있다. 또한 종교를 초월해 좋은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오빠가 좋게 느껴진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불자 가수 한 사람의 인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로 확대될 때 청소녀들을 향한 포교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하게 하는 이 이벤트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녀들이 몰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美 태고사 '공사중단'

사찰측 "도편수 상대 소송 검토"



△지난 7월 상량식 직전의 태고사대웅전 모습.

미국 내 최초로 한국 전통 사찰 양식을 갖추고, 내년 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던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산중의 태고사(Mountain Spirit Center)가 공사 중단 상태에 봉착했다.

태고사 주지 무랑스님은 4일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의 요청으로 태고사 대웅전 공사를 맡았던 도편수 이춘식씨와 만나 공사 미 진행 부분(문짝·담집·수미단, 천장 장식공 비용 등에 대한 환불과 공사계약 중단)을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무랑스님은 문제 해결을 종단에 위임했고, 종단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씨가 대웅전 공사를 맡으면서 비상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도면도 제대로 참고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시공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태고사는 송산 스님(회계사 조실)의 미국인 제자인 무랑스님이 미국 내 한국 불교의 포교 거점으로 삼기

위해 7년 전부터 건립을 추진해 온 사찰로, 지난해 12월 도편수 이씨의 대웅전 건립을 계약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지난 7월 22일 대웅전 상량법회를 가졌다.

그러나 상량법회에 참석한 스님과 문화재 건축 전문가 등이 대웅전의 처마 길이가 한국 전통양식과 달리 너무 짧고, 천장 역시 전통 우물천장 양식이 아닌 긴 널빤지와 각목을 붙이는 등 한국 전통 사찰양식과 다르게 시공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무랑스님은 도편수 이씨에게 한국 전통 양식으로 다시 고쳐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씨는 스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8월초 이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이은자 기자

진천불교대 개교

충북 진천 지역 불자들의 교육 도량이 될 진천불교중앙대학(학장 이영일)이 문을 열었다. 진천 불교중앙대학은 6일 진천 여승회관에서 도술암 혜정스님, 보탑사 능현스님, 상림사 혜묵스님을 비롯해 12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개교식을 봉행했다.

교양대학은 진천 지역의 불자들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자는 서원이 모여져 진천불교여승회, 진천불교후원회, 파라미타진천지회의 후원으로 여성회관 내에 설립됐다.

교양대학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찬불가 사찰예절 불자생활 불교근본교리 등 14개 강좌가 마련됐다. 강의는 지역 스님과 법사들이 맡아 12월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매월 첫째주 목요일 개설된다. (016)405-4532 오종욱 기자

동국학원 공금횡령조사위 구성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3일 법인에 공금횡령과 관련 이사회를 열고 '공금부정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도 이날 조계종 총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리위는 이사회가 구성한 진상조사위가 자체조사를 할 경우,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수 있다며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총림학교관리위는 또한 '동국학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총림학교관리위원회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동국대학 전반의 자금운용과 현금 흐름, 그리

고 학교의 회계시스템의 검토와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학 교무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총림학교관리위원회의 입장 표명 문건을 분석한 결과 독립 운영되는 법인의 회계와 학교 회계의 혼동 등 상당 부분 부정확하다"는 내용의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교무위는 "대학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에 대해 조속한 사과와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내년 주5일근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최근 총무원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를 선도하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종무기관에서 주5일 근무

무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실시는 지역 종무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교계관련 사업체와 단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올해 초부터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원우기자

도약주세요

백혈병 수술비 '애간장'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김성림(27·사진) 불자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매우고 있다. 12개월 된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가 이 병을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갑자기 쏟아진 코피가 멈추질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김 씨는 자가 골수 이식이 가능한데 판정을 받았지만, 2천여 만 원이나 드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 남편은 이미 김 씨의 병간호를 위해 직장도 그만 두었고, 12개월 된 아들은 친정 부모에게 보내졌다. 도움 주실 분은 생령나눔살림회 후원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농협 053-01-243778 오종욱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실무자협 결성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5일 '사회복지실무자협의회' (회장 조석영)를 결성했다. 지금까지 동일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은 있었지만, 전국 규모의 공식 조직으로는 처음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의 31개 시설의 부장급 불교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사회복지사 권익보호 및 전문화 △불교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임원회의 총회

등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5일 세계정 하림각에서 제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 인택민 이사장 성운스님(권역기사 1인) 등 4개 분야 14명 3개 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철우 기자

한가지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별방은 명당 육기방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아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삼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오.

※ 좋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육옥 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합동납골묘 전용 강력한 3천 카우스 25만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꼭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이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 (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명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